투애니원 “일본서도 내가 제일 잘나가”

데뷔 공연 3개 도시 매진…최다관객 7만명 동원
일본 언론들 일제히 톱기사…“일본 팬 사로잡아”
“귀여우면서 강인, 빅뱅보다 더 좋아” 팬들 열광

여성그룹 투애니원이 한국 아티스트의 데뷔 공연으로는 최다 관객인 7만 명을 동원하며 일본 가요계에 화려한 첫발을 내디뎠다.

투애니원은 19, 20일 이틀간 일본 요코하마의 요코하마 아레나에서 열린 일본 데뷔 콘서트 ‘투애니원 퍼스트 저팬 투어 -놀자 인 저팬’에서 모두 2만4000명을 동원했다. 이 공연에 이어질 고베 월드기념홀(24·25일), 지바 마쿠하리 멧세(10월 1·2일) 공연도 이미 각각 1만6000석, 3만 석이 매진돼 3개 도시, 6회 공연을 통해 모두 7만 명을 동원하게 된다. 데일리스포츠와 스포츠닛폰, 산케이스포츠, 닛칸스포츠, 스포츠호치 등 일본의 5대 스포츠신문은 일제히 이 같은 소식을 20일자 연예면 톱기사로 보도했다.

투애니원은 첫 방송 출연 무대도 일본 최고 인기 음악프로그램으로 꼽히는 TV아사히의 ‘뮤직스테이션’으로 삼았다. 투애니원은 2일 생방송에 출연해 ‘내가 제일 잘나가’를 불렀다.

20일 공연 전 만난 와타베 마사유키(여·17) 양은 “‘뮤직스테이션’을 보고 투애니원에 관심을 갖게 됐다. 빅뱅을 좋아했는데 투애니원을 더 좋아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룹 투애니원의 일본 첫 단독 콘서트장인 일본 요코하마의 요코하마 아레나 앞에서 팬들이 입장을 기다리며 줄지어 서있다. 19일과 20일 공연을 펼친 투애니원은 이달 말과 10월 초에도 일본에서 공연을 펼친다.
사진제공 | YG엔터테인먼트

투애니원은 일본에서 볼 수 없었던 강한 여성상과 개성 넘치는 패션으로 인기를 모으고 있다. 이틀간 열린 요코하마 아레나 공연 관객의 90%가 여성이었을 정도로 여성팬들에게 뜨거운 지지를 얻고 있다.

도쿄 인근 지바에서 찾아온 아루가 이츠미(29·여) 씨는 “투애니원은 귀여우면서 멋있다. 한국의 다른 걸그룹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고, 일본에서도 찾기 힘든 걸그룹이다. 패션도 일본에서 전혀 볼 수 없었다. 노래도 잘한다”고 말했다. 요코하마에 거주하는 나카다 마사요 (50·여) 씨 역시 “투애니원은 일본에는 없던 강한 여성을 느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닛칸스포츠도 “투애니원은 개성이 강하고 강인한 여성의 모습으로 일본 팬들을 사로잡고 있다”고 분석했다.

투애니원 씨엘은 20일 공연을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큰 공연장에 관객이 가득 찬 모습에 놀랐고, 우리의 의상과 헤어스타일을 그대로 따라하고 노래도 따라부르는 모습이 너무 신기했다”고 소감을 밝혔다. 산다라박은 “앞으로 투애니원의 인지도를 서서히 높여가고 노래도 하나하나 다 알리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아울러 관객들과 더욱 호흡하기 위해 일본어 공부에도 매진하겠다고 했다.

투애니원의 이번 공연은 8월 말 서울에서 열린 첫 콘서트 ‘투애니원 퍼스트 라이브 콘서트-놀자’를 그대로 가져왔다. 다만 ‘아이 앰 더 베스트’ ‘헤이트 유’ ‘어글리’ ‘론리’ ‘톤트 스톱 더 뮤직’ 등 21일 발표될 투애니원의 일본 데뷔 음반 수록곡을 일본어로 불러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지드래곤과 탑의 유닛인 지디앤탑이 게스트 무대에 올라 ‘넉아웃’ ‘오예’ 등 3곡을 불렀다.

요코하마(일본) |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트위터@ziodadi

한효주 첫 베드신 “소지섭이 잘해줘…”

영화 ‘오직 그대만’서 성숙한 변신
소지섭 “난 많이 해봐서 괜찮은데…”

배우 한효주가 데뷔 이후 처음으로 베드신에 도전했다.

한효주는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CGV 압구정에서 열린 주연 영화 ‘오직 그대만’ 제작보고회에서 상대역 소지섭과 함께 한 베드신 장면을 공개했다.

이날 제작보고회에서 영화의 하이라이트 영상은 극중 전직 복서 출신 소지섭과 사고로 시력을 잃어가는 여자 한효주의 애틋한 러브신을 담아냈다. 영화는 두 남녀가 서로의 상처를 씻어주며 사랑을 나누는 순애보. 한효주는 소지섭과 주연하며 운명과도 같은 사랑을 표현하는 베드신 연기를 펼쳤다.

한효주가 그동안 순수한 이미지로 관객과 시청자에게 다가왔다는 점에서 이번 도전은 참신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를 통해 한효주는 더욱 성숙한 매력을 과시하며 스크린 주역으로서 역할을 당당히 해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연출자 송일곤 감독은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한효주는 “첫 베드신”이라면서 “소지섭이 잘 (리드)해줘 무리없이 잘 찍을 수 있었다”는 짧은 소감을 남겼다. 소지섭은 웃으며 “저는 많이 해봐서 괜찮다”고 화답했다.

한효주는 이날 제작보고회에서 사랑과 관련해 “늘 사랑이 하고 싶다”면서 “영화 속에서라도 한 남자를 절실히 사랑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멜로만 하고 싶을 만큼 예쁘게 촬영했다”고 덧붙였다.

‘오직 그대만’은 개봉을 앞두고 10월6일 막을 올리는 제16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선정됐다.

윤여수 기자 tadada@donga.com 트위터 @tadada11


편집 | 좌혜경 기자 hk7048@donga.com 트위터 hk7048

20일 오전 영화 ‘오직 그대만’ 제작보고회에 참석한 주연배우 한효주와 소지섭.(왼쪽부터) 두 사람은 멜로영화의 주연 커플답게 따뜻한 시선으로 관객의 시선을 기대했다.
국경원 기자 onecut@donga.com 트위터 @k1isonecut

슈스케3 “예리밴드 이탈 사과…재발 방지할 것”

최근 ‘악마의 편집’으로 도전자들의 이탈 사태를 빚은 케이블·위성 채널 엠넷의 ‘슈퍼스타K 3’ 제작진이 시청자에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제작진은 19일 밤 홈페이지에 올린 ‘슈퍼스타K 3에 보여주신 관심과 금언들 감사드린다’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예리밴드의 이탈 사태와 관련해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시청자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치게 된 점 거듭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이어 “현재 생방송 진출자들은 9월30일에 있을 첫 생방송 무대를 위해 열심히 트레이닝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더는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수많은 시청자와 참가자들에게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새로 뽑히게 될 새로운 TOP10들과 함께 멋진 무대로 찾아뵙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슈퍼스타K 3’ 톱 10에 진출한 예리밴드는 제작진의 편집 조작을 주장하며 17일 숙소를 이탈했고, 도전자들을 배려하지 않은 편집 방식을 둘러싸고 격한 논란이 불거졌다.

예리밴드의 복귀 설득에 실패한 제작진은 현재 30일 첫 생방송 무대를 앞두고 예리밴드를 대체할 추가 본선 진출자를 심사위원들과 논의 중이다.

인터넷상에서는 버스커버스커와 박장현 등이 대체 추가 합격자로 유력시되는 가운데 톱 10에 포함될 새 멤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김민정 기자 ricky337@donga.com 트위터 @ricky337



스타 온라인

소녀시대 ‘런닝맨’ 촬영 현장 공개


그룹 소녀시대가 SBS ‘일요일이 좋다-런닝맨’(런닝맨)에 출연한다는 소식으로 화제를 모은 가운데 촬영현장 광경이 20일 공개됐다. 이날 각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런닝맨’ 촬영에 참여한 소녀시대 멤버들의 모습을 찍은 ‘직찍 사진’이 올랐다. 사진 속에서 소녀시대 멤버 윤아를 비롯해 태연, 유리, 제시카, 효연, 서현은 열심히 촬영에 임하며 흥미로운 표정이다. 이들은 유재석, 김종국, 개리, 하하 등 ‘런닝맨’ 멤버들과 어울려 한바탕 ‘추격전’을 벌이며 누리꾼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소녀시대 멤버들 모두가 함께 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면서 반겼다.

윤형빈·정경미 커플, 코믹 애정 눈길


개그맨 커플인 윤형빈과 정경미가 코믹한 애정 행각(?)으로 관심을 모았다. 우선 윤형빈은 20일 자신의 트위터(@usraman)에 “그냥 난 되게 덤덤했어. 아무렇지도 않았어. 진짜야. 정말. 사진도 그냥 찍은 거야. 안 찍자니 좀 서운한 그런 거? 절대로 웃는 거 아니야. 원래 웃는 상이야”라는 글과 함께 외국인 모델 제시카 고메즈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을 공개했다. 이 게시물에 여자친구인 정경미는 “내가 지켜보고 있다”라는 글과 함께 코믹한 분장을 하고 강렬한 시선으로 카메라를 노려보고 있다. 누리꾼들은 ‘개그 커플의 코믹한 사랑법’ ‘절대 바람을 필 수 없을 것 같다’며 재미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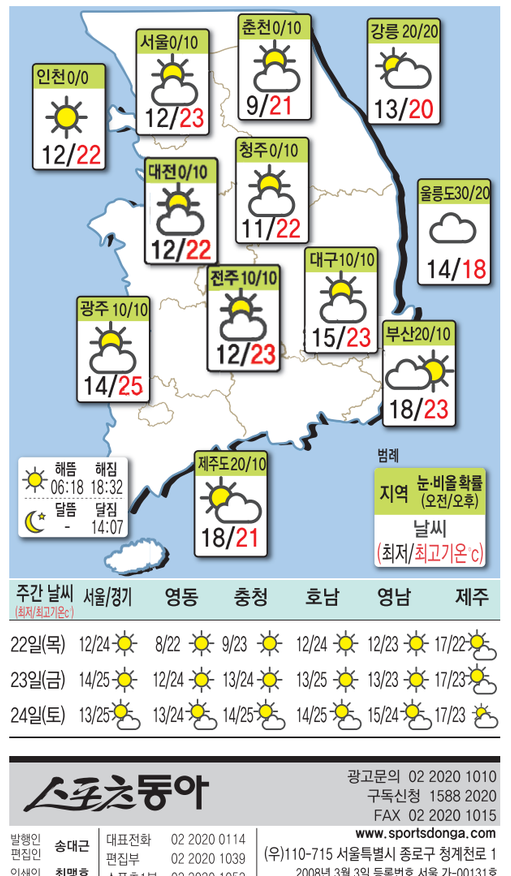
스타 가라사대

가수 성시경 “김조한과 친척 관계.”
20일 방송한 SBS ‘강심장’에 출연해. 가수 김조한이 셋째 고모부 친조카의 남편이라며 “촌수가 너무 멀어 남 같다”면서.

‘무한도전’ 김태호 PD “김태호보다 잘생겼다고 하더라고요.”
20일 트위터(@teoinmbc)에서. “어제 아침 장소 헌팅 갔던 곳에서 한 시민에게 ‘무한도전’ 김태호 PD 닮았다”는 말을 들었다며.

오늘의 날씨

9월 21일 수요일 (음력 8월 24일)



주간 날씨 (최저/최고기온 ℃)	서울/경기	영동	충청	호남	영남	제주
22일(목)	12/24	8/22	9/23	12/24	12/23	17/22
23일(금)	14/25	12/24	13/24	13/25	13/23	17/23
24일(토)	13/25	13/24	14/25	14/25	15/24	17/23

스포츠동아
광고문의 02 2020 1010
구독신청 1588 2020
FAX 02 2020 1015
www.sportsdonga.com
(우)110-7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
2008년 3월 3일 등록번호 서울 가-00131호
2008년 3월 24일 창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 한달 12,000원, 1부 700원

발행인 송대근
편집인
인쇄인 최맹호
편집국장 이성춘
광고국장 이승욱

대표전화 02 2020 0114
편집부 02 2020 1039
스포츠1부 02 2020 1052
스포츠2부 02 2020 1051
엔터테인먼트부 02 2020 1061
사진부 02 2020 1068